**12. 분재 미술관과 그 컬렉션**

오미야 분재 미술관은 100년 가까이 일본 분재업계의 핵심을 담당해 온 공간으로써 오미야 분재 마을의 외곽에 2010년 개관했습니다. 분재 예술의 중심적 존재이자 일본 최초의 공영 분재 미술관입니다. 오미야 분재 미술관은 21세기에 분재의 중요성과 높은 관심을 최대한 유지하고, 분재의 1000년에 걸친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분재 미술관의 건물은 전통적인 일본 건축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담당 직원이 맞이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분재 미술관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로 스마트폰 버전 컬렉션 가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관내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음성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물 전면에 있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는 우아한 분재 정원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뮤지엄 숍에서는 한정 디자인으로 인기 있는 수건과 엽서 등 매력적인 기념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분재가 전시된 컬렉션 갤러리에 들어가기 전에 방문객은 프롤로그 구역을 지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풍부한 그림이 있는 패널을 통해 분재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기 쉽게 일본어와 영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수목의 종류, 이 수목들이 ‘만들어 가는’ 조형, 분재를 더욱 즐겁게 감상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이라 불리는 바위 같은 장식용 돌 등 분재 재배와 관련된 도구에 대한 정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미야 분재 미술관의 컬렉션은 일본 유수의 중요 분재를 약 120점 전시하고 있습니다. 선별된 전시물은 수령 100년 이상을 자랑하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역사와 전통, 독창성,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매우 귀중한 분재입니다. 분재가 이렇게 긴 수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미야 분재 미술관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 희소가치가 높은 분재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수상 경력이 있는 작품 중 하나는,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 등) 두 명의 일본 전직 총리와 중요 인사들이 소유하고 있던 작품입니다.

메인 갤러리에는 컬렉션 중 5점의 분재가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 내용은 계절을 고려해 매주 변경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분재는 칸막이가 있는 공간으로 구분해 하나하나 소중하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간유리로 된 벽은 마치 일본의 전통적인 ‘장지문’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다음에 있는 건 전통적인 격식이 다른 3개의 자시키카자리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분재를 장식하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도 이곳, 오미야 분재 미술관뿐입니다. 메인 갤러리와 마찬가지로 각 방에 하나씩 설치되는 분재는 매주 변경됩니다. 관내를 지나다 보면 미술관의 메인이기도 한 개방적인 분재 정원이 펼쳐지는데, 이곳에는 60여 점의 분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2층 분재 테라스에서 분재 정원의 광활한 전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분재 정원의 동쪽에는 정기적으로 전시 주제가 바뀌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분재의 역사와 인접한 오미야 분재 마을에 대해 전시하고 있습니다.